

한-인니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MOU 16건 체결
 교역·투자, 방산, 핵심광물, AI 등 협력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교역액 300억 달러 재돌파 노력...CEPA, 할랄 인증 등 협력 강화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완수 축하...포괄적 방산 협력 확대기로

MONTHLY **KOFA**

코파의

정음

Ruko Pinangsia Block B No.25, Tangerang, Jl. Boulevard Jend. Sudirman, RT.001/RW.009,
 Panunggan Bar., Kec. Cibodas, Kota Tangerang, Banten 15138, Indonesia
 Tel. 0856 9113 2325, 0821 1122 8827 E-mail : indokofa@gmail.com



Vol. **139**
 2026/04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aeto@gmail.com

KOFA 제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한-인니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MOU 16건 체결

교역·투자, 방산, 핵심광물, AI 등 협력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교역액 300억 달러 재돌파 노력...CEPA, 할랄 인증 등 협력 강화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완수 축하...포괄적 방산 협력 확대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인니 양국 간 정상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정치·안보·교역·투자·산업·첨단기술·에너지전환·녹색경제·사회문화·인적 교류·지역·국제문제 등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모두,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첫 사례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경주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5개월여 만에 프라보워 대통령을 국빈으로 환영하게 돼 기쁘다고 했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와 국빈 초청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자 핵심 협력국으로서, 양국의 포용적 성장과 공동 번영 실현을 위해 경제·혁신, 안보·방산, 문화·창조 등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이번 회담 직후 각 분야에서 총 16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돼 분야별 협력 이행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한·인니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강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 성과 중 교역·투자 분야를 먼저 꼽았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내 최대 경제대국으로, 2300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역내 핵심 경제협력국이다.

양 정상은 양국 교역액 300억 달러 재돌파를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할랄 인증과 지식재산 보호·집행 등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2억 8000만 명 인구의 80% 이상이 무슬림으로, 연간 3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할랄 시장이기도 하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인도네시아 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 및



▲김경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바후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핵심광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산 배터리 생산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경제발

전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더욱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이번 계기에 양국은 1조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다

나라 국부펀드를 매개로 핵심 광물, 인프라, 도시개발,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전략 산업에 투자 중인 한국 기업은 물론, 한국의 혁신 기업과 K-콘텐츠 산업 분야에 다난타라 국부펀드의 적극적인 투자를 희망했으며, 이를 토대로 양국의 동반성장을 이뤄가자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인 양국의 중소기업·스타트업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인도네시아 산업인력 양성 협력을 통해 양국의 경제·산업 연계를 더욱 강화해 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양국 중앙은행 간 QR 결제 연계 서비스를 4월 1일부터 개시하게 된 것을 환영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국민 간 교류·관광 증진, 향후 4년간 14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소비자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안보 분야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 10여년간 협력해 온 KF-21/IF-X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이 올해 6월 성공적 완수를 앞두고 있는 것을 축하했다.

나아가, 양국이 상호 최적의 방산 파트너로서 향후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 공동생산, 유지·보수·정비 센터 설립, 인력양성 등을 포함한 포괄적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테러, 조국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https://hanjin.co.id/>

Jl. Raya Serang – Jakarta KM. 80, Kel. Kaserangan, Kec. Ciruas –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https://hanjin.co.id/>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선물 교환 친교일장에서 프라보위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선물한 발리 크리스(단검)을 살펴보고 있다.

통 안보 분야에서도 양국 국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핵심광물, 조선 등 미래 신성장 분야에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해 세계 니켈 생산량 1위, 코발트 생산량 2위 등 우리 전략 산업인 이차전지 등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한 인도네시아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양국 간에 전략적 협력이 매우 유망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구체화해 나가자는 뜻을 모았다. 이어,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도 기술 공동개발, 인력양성 지원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 1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동남아시아 해양플랜트 산업 분야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정상은 첨단기술과 에너지 전환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들에 기반해 AI 기본협력을 비롯해, 디

지털·교육·식량안보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AI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모든 개인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글로벌 AI 기본사회연대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또한, 양국은 탄소포집저장 협력, 환경 협력, 청정에너지 협력 분야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국제감축 목표 달성,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양 정상은 또 활발한 문화 교류를 통한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정을 증진해 나가자고 했으며, 특히 양국 정부 간 문화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문화창조산업 분야에서 상호투자 및 합작사업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역대 K-컬처 거점국이자 180억 달러 규모의 거대 콘텐츠 시장인 인도네시아를 통해 호혜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양 정상은 올해 86만 명을 기록한 양국 국민간 상호방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우려에 대해 공감한 양 정상은 중동의 평화와 안정의 조속한 회복 및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세안 내 자원 부국이자 우리의 최초 해외 유전개발 국가이기도 한 인도네시아와 안전한 해상 수송로를 통한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등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등 에너지 자원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 정상은 주요 지역·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 정책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인도네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프라보위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최근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으로 활동 중이던 인도네시아 장병들의 희생과 관련해 프라보위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한편, 국제 평화를 위한 인도네시아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지를 확인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양국 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을 계기로, 세계 4위 인구나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한 아세안 최대 경제대국인 인도네시아와 교역·투자 고도화, 포괄적 방산 협력 심화 및 AI 등 첨단기술·인프라·조선·원전·에너지 전환·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 실질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인니 “재택근무, 중앙정부 공무원부터 우선 시행... 민간 부문 확대”



▲국영 에너지회사 빠르따미나가 운영하는 주유소 [자료사진]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적인 석유·가스 부족 사태가 심화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때 했던 재택근무 정책을 다시 도입한다. 재택근무(Work From Home, WFH) 요일은 매주 금요일이 될 것으로 보이며, 우선 중앙정부 공무원부터 시행하고 이어 지방정부와 민간 부문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6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전날 “정부가 재택근무 정책을 최종 확정했으며, 조만간 아이틀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이 세부적인 정책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금요일’ 재택근무 시행 방안과 관련하여,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요일이 선택됐으며, ‘금요일’은 근무시간이 가장 짧기 때문에 생산성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관은 재택근무 정책이 민간 부문에 의무적으로

적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특히 제조업은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민간 부문에는 권고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푸르바야 장관은 재택근무가 연료 소비를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정부 전망에 대해, 절감 가능성을 추산한 것이라며,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일부 분석가들은 재택근무 조치와 이동 제한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gaeto@gmail.com

정직하고 품질좋은 제품으로 인정받겠습니다!

— LS-AG Cable Indonesia 공식 대리점 —

PT ALJIUM GREEN NUSA

LV 케이블/Building 케이블

산업용 케이블

Overhead 케이블

Busduct

HEAD OFFICE
 Ruko Dalton Extension DLNT 052-053
 Jl.Scientia Boulevard, Gading Serpong,
 Curug Sangereng, Kelapa Du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810
 Tel: 0811 8126 7788 (☎)
 0811 8430 561 (한국인 상담)

LS-AG Cable Indonesia
 www.lscns.com
 www.ltag.co.id

Karawang 공장
 Artha Industrial Hill
 Blok E Kav 20-21, Wanajaya,
 Telukjambe Barat, Karawang
 Jawa Barat 41361, Indonesia
 Tel: 021 3973 3988

OFFICIAL DISTRIBUTOR | 공식 대리점
PT ALJIUM GREEN NUSA

인도네시아 온라인 사기 피해 9조 루피아... 한인도 주의 필요

‘글로벌 사기 지수 2025’ “인도네시아, 112개국 중 사기 위험도 2위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약 9조1천억 루피아(약 5억4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2월 28일 보도했다.

마핀도(Mafindo=Indonesian Anti-Slander Society)는 2월 2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디지털 사기(digital fraud)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4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도네시아 안티 스퀘 센터(ASC)에 접수된 43만 2,637건의 신고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마핀도는 금융감독청(OJK)이 주도하고 은행, 전자상거래 플랫폼, 금융회사 등이 참여하는 협력 기구다.

마핀도가 전국 5개 도시에서 1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별도의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의 디지털 사기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왓츠앱(WhatsApp)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유형은 투자 사기, 복권 사기, 가짜 채용 제안, 온라인 마켓 사기, 연애 사기 등 다양했다.

마핀도는 보고서에서 “문제의 근본은 단순한 문해력 수준이 아니라 규제 공백, 사기 피해를 줄일 도구의 부족, 이해관계자 간 협력 부족 등 생태계의 불균형”이라고 밝혔다. 셉티아지 에코 누그로호 마핀도 의장은 “이 모든 요소가 사기범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보안 인프라 개선 속도가 빠르게 진화하는 사기 네트워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사기범들은 국내외에서 산업적 규모로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와 내전 중인 미얀마가 온라인 사기 거점으로 가장 많이



▲디지털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 프로그램 [자료사진=인스타그램]

지목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5년 한 해 동안 캄보디아에서만 최소 53곳의 사기 단지를 확인했다. 이들 센터는 고수익 일 자리를 약속하며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 시민 수천 명을 속여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앰네스티는 이들 단지에서 강제노동, 고문, 기타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밝혔다. 국제적 평가도 우려를 더한다. AI 기반 신원 인증 플랫폼 섬섬(Sumsub)이 발표한 ‘글로벌 사기 지수 2025’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조사 대상 112개국 중 사기 위험도 2위를 기록했다.

개인정보 유출 심각
사이버 보안 전문가 알폰스 타누자야는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

사기 위험이 높은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을 지적했다. 그는 주민등록번호(NIK)와 휴대전화 번호 등의 광범위한 유출과, 이를 관리하는 기관의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를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퍼지면 회수하거나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차원의 대응으로 민감 정보 공유 자제와 이중 인증(2FA) 같은 다층 보안 적용을 권고했다. “한 사이트가 폐쇄되면 운영자들은 다른 주소나 위치로 다시 나타난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디지털 사기에 대한 법 집행이 약한 점도 국민들의 취약성을 키운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자산 보호에 대

한 대중의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불법 사기에 대한 미흡한 단속은 점점 더 정교해지는 사기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인도네시아 ICT 연구소의 헤루수타디 소장은 경제적 압박이 커질수록 사람들이 사기범이 제시하는 단기간 고수익 약속에 취약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금융 문해력의 격차, 비공식 거래에 왓츠앱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관행, 사회공학적인 사기를 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 유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간 법 집행 공조와 불법 자금 추적이 더디게 진행되는 점도 사기 확산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디지털 사기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단호하고 표적화된,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 사회 역시 이러한 환경 속에 있다. 왓츠앱을 통한 접근, 개인정보 유출, 고수익 약속을 내세운 사기 유형은 교민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개인 정보 보호와 이중 인증 설정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인 사회에서 주의해야 할 주요 유형>

■ 왓츠앱 사칭 사기
한국 지인이나 교회·한인회 관계자를 사칭해 긴급 송금을 요청하는 사례. 번호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연락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음성 통화로 재확인해야 한다.

■ 고수익 투자 사기
니켈, 배터리, 부동산 개발 등 현지 유망 산업을 내세워 단기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는 방식. 사업자 등록 여부와 금융당

국(OJK)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익 보장”이라는 표현은 경고 신호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

■ 가짜 채용·비자 사기
고액 월급과 비자 해결을 약속하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보고된다. 계약서 원본 확인과 대사관 문의 없이 송금하는 것은 위험하다.

■ 온라인 쇼핑·QR 결제 피싱
가짜 쇼핑몰 링크, QR코드 결제 유도, OTP 요구 등은 전형적 수법이다. OTP와 비밀번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유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보호가 1차 방어선
전문가들은 “한번 다크웹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경고한다. 모든 금융·이메일 계정에 2단계 인증(2FA)을 설정하고, SNS에 여권·비자 사진을 게시하지 않는 기본 수칙이 필요하다. 공용 와이파이에서 금융 거래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 발생 시 대응
피해를 인지한 즉시 은행에 연락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거래번호를 확보하고,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이나 IASC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인회사 대사관에 사례를 공유해 추가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

“신뢰를 노리는 범죄”
온라인 사기는 기술의 문제이자 신뢰를 악용하는 범죄다. 한인 사회의 강한 네트워크는 장점이지만, 동시에 사칭과 관계형 사기에 취약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급할수록 멈추고, 돈 문제는 반드시 직접 통화로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데일리인도네시아]



2026년 “에이스 에너지” 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사업에 본격 투자합니다.

We are Korea's No. 1 Solar Power Development & EPC, O&M Company in Indonesia.

PT. ACE ENERGY SERVICE는 인도네시아 No. 1 Developmet & EPC, O&M 태양광 전문회사입니다.

2026년부터 ACE는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합니다.
“ACE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전문 기업의 역할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선도 투자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합니다.”

ACE의 핵심 투자사업 영역
ACE는 다음과 같은 미래 지향적 사업 분야에 집중합니다.

- 산업형 태양광 솔루션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 Non-CAPEX 솔루션 제안)
- OFF_GRID/IPP/PPP사업 투자/개발
- WTE, HYDROPOWER, 전기차 충전소
- BESS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시스템)와 연계된 스마트 에너지 관리

초기 자본 지출 부담, ACE가 없애드립니다!
ACE는 고객의 태양광 설치 사업에 대한 초기 자본 지출(CAPEX)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혁신적인 비(非)CAPEX 금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투자 부담 없이 실제 RE100과 NET ZERO에 도전하세요.

성공적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 PT ACE ENERGY SERVICE에 지금 바로 연락하십시오

연락처 : Mr. Steve Youn : 0812 9730 5553 / steveyoun.indo@gmail.com

Mr. Song Kwang Ho : 0812 8168 3844 / dragonhoya@gmail.com

미래를 여는 에너지, ACE와 함께 만드세요!

PT. ACE ENERGY SERVICE

인도네시아 No. 1 Financing - EPC - O&M 태양광 전문회사

미국, 통상 관련 인니에 또 다른 조사 요구... 강제노동 문제



미국이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또 한 차례 통상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강제노동(forced labor)과 연계된 상품의 수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이 조사 명분으로 제시됐다. 13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품의 시장 유입 차단 조치와 집행 실태를 들여다보는 새 조사를 개시했다. 인도네시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강제노동은 자발적 동의 없이, 처벌이나 위협 때문에 억지로 일하는 노동을 말한다. 미국 측은 각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자국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마련하고도 이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은 강제노동이라는 폐해를 통해 인위적 비용 우위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는 해외 생산자들과 오랫동안 경쟁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인도네시아가 강제노동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생산된 수입품의 유입을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

했는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 정부는 사전 공개된 연방관보 공고를 통해 인도네시아 측과의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청문회는 오는 4월 28일 열릴 예정이며, 이해관계자들은 4월 15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청문회 출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미국이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잇달아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기존 관세 조치를 다른 방식으로 복원하기 위해 각국을 상대로 새로운 조사 절차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하루 전에도 인도네시아의 대미 무역흑자와 관련해 과잉생산 의혹을 제기하며 별도 조사에 들어갔다. 시장에서는 이를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미국과의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하르요 리만세토 경제조정장관실 대변인은 자카르타글로브에 “미국의 조사 이후 인도네시아는 미국 측과 강도 높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

산 제품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수입 구조를 보면 미국이 문제 삼는 강제노동 연계 상품 이슈는 대중국 수입과도 맞닿아 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올해 1월 인도네시아의 비석유·가스 수입액은 180억 4,000만 달러였고, 이 가운데 43.75%인 약 78억9,000만 달러가 중국산이었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13일 경쟁국들도 같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관세 인상 자체는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또 인도네시아의 대미 무역흑자 배경 가운데 하나로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비용을 언급했다. 그는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효율성을 더 높여 대응할 것이며, 미국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무역 전망이 아주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강제노동 문제 자체를 넘어, 미국이 노동과 공급망 기준을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흐름을 다시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인도네시아로서는 대미 수출 방어뿐 아니라 수입 공급망 관리, 특히 중국산 중간재와 완제품에 대한 점검 부담도 함께 커질 가능성이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니 정부, 세금신고 마감 4월 30일로 연장... 개인·법인 동일 적용



인도네시아 정부는 개인 소득세 신고 기한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2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25일 개인 연간 세금신고서(SPT) 제출 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한 달 연기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재무부의 공문을 통해 공식화될 예정이다. 이번 기한 연장은 일부 납세자들이 ‘코르텍스(Core-tax)’ 시스템 접속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고 절차에 차질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푸르바야 장관은 “SPT 신고 기한을 한 달 연장할 것” 이

또한 이번 조정으로 개인 납세자의 신고 기한은 법인 납세자와 동일하게 4월 30일로 일원화된다. 앞서 비모 위자안또 국세청장은 올해 신고 기간이 라마단과 이돌 피드리 연휴와 겹친 점을 고려해 기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3월 24일 기준 2025 과세연도에 대한 세금 신고 건수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880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 목표치인 1,500만 건의 59.1% 수준에 그친 수준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KOFA 광고를 제안합니다.

KOFA에서는 소식을 통해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신발업체, 부품업체, 및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코파소식지(월간)

특 징

- 1) 소식지는 KOFA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 관련 회사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 2) 전달 하고자하는 정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홍보 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높습니다.

2, 광고 상품안내

- 1) 연간(12회) 계약 혜택 : 20% 할인,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 2) 6개월(6회) 계약시 혜택 : 10% 할인,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KOFA 사무국 : 021-3002-9091 (mr. kang) 0821 1122 8827



한가지라도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인도네시아 건설환경에
최적화 되어있는 **신화**는
고객의 마음에 신뢰를 심어주는
건설기업입니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성공전략을
신화가 함께 하겠습니다.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PT. SHINHWA TECHNO PLANT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Jl. Industry Selatan 8 Blok EE-6P Cikarang,

Bekasi 17530 Indonesia

Tlp. 021-8984-1283 Fax. 021-8984-1284

Email. shinhwatechno0408@gmail.com

“권위주의는 해법 아니다” ... 알빈 니콜라 “재정 중앙집중이 부패 키운다”

이 글은 인도네시아 국제투명성 기구 소속 연구원 알빈 니콜라가 자카르타포스트에 기고한 글로 그의 개인적 의견이다.

인도네시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Indonesia)의 알빈 니콜라(Alvin Nicola) 연구원은 최근 인도네시아의 부패 점수 하락과 관련해 “권위주의는 부패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최근 2025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의 점수는 37점에서 34점으로 떨어졌고, 세계 순위도 99위에서 109위로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2월 13일 기업 지도자들과 외국 대사들 앞에서 “뿌리 깊은 부패와 싸우기 위해 약간의 권위주의(a little bit of authoritarianism)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곧바로 “나는 완전히 민주적이다”고 덧붙였다.

알빈은 이 발언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고 본다. 그는 자카르타포스트 기고문에서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고, 감시와 견제가 약화되기 쉽다”며 “대규모 부패는 정치적 보호와 느슨한 감독 구조 속에서 번성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적 사례도 언급했다. 신질서(New Order)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 부패와 정경유착, 족벌주의가 구조화됐으며, 30년 넘게 집권한 수하르토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지도자로까지 거론됐다는 것이다.

최근의 국제 평가들도 우려를

뒷받침한다. IMD 세계경쟁력 연감은 기업 경영진 사이에서 상업 거래의 뇌물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베르텔스만 전환지수는 반부패 집행과 법적 청렴성에 대한 평가가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세계경제포럼 경영진 설문조사 역시 기업 활동에서 비정상적 지급이 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알빈은 이러한 평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구조를 짚는다. 중앙에서 통제되는 대규모 지출, 약화된 독립적 감시, 국회와 대중에 대한 책임성 부족이다.

대표 사례로는 무상 영양급식 프로그램이 거론된다. 수조 루피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입법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집행되고 있다. 초다수 연합이 장악한 국회는 실질적 감독 청문회를 열지 않았고, 계약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투명한 조달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다. 국가감사원(BPK) 역시 종합 감사보고서를 내놓지 않았다.

적백농촌협동조합(Red and White Rural Cooperatives) 사업도 비슷하다. 정부는 2026년 마을기금(Village Fund)의 58%를 중앙이 직접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했다. 자금은 지방정부 계좌를 거치지 않고 특별 보유계좌로 바로 이동한다.

국부펀드 다난타라(Danantara)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광산·은행·제약 등 핵심 국영기업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이 기관은 수백 조 루피아 규모의 자산을 통제한다. 막대한 국부가 한 기관에 집중되면서 감독과 책임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프라보워 행정부는 대표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정부 이전지출을 삭감했다. 지방정부는 예산 자율성은 줄어든 반면, 서비스 제공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로 인해 지역은 기본 서비스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경쟁적으로 요청해야 하는 구조에 놓이게 됐다. 그 기준이 성과나 필요가 아니라 정치적 관계에 좌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알빈은 “부패는 권력이 약해져가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는 장치가 약해질 때 커진다”고 강조한다. 감독이 느슨하고, 지출이 불투명하며, 권력이 중앙에 집중될수록 후견 네트워크가 작동하기 쉬워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부패가 적은 국가들의 공통점도 제시했다. 독립적인 감사기관, 실질적 입법 감독, 자유로운 언론, 그리고 시민 사회의 정보 접근권이다. 이는 지도자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이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패척결위원회(KPK)는 2019년 법 개정 이후 독립성이 약화됐고, 국회의 감독 기능도 줄어들었다. 조달 문제를 취재하는 언론인들은 법적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데이터 역시 이런 우려를 반영한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평균 부패 점수는 71점인 반면, 비민주 체제는 32점이다. 인도네시아는 34점으로, 권위주의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알빈은 결론적으로 “해결책은 약간의 권위주의가 아니라, 더 강한 제도적 견제”라고 강조한다. 대규모 예산 사업에 대한 실질적 국회 감독, 분기별 조달 계약 및 집행 내역 공개, KPK의 독립성 회복, 언론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이 농담처럼 들렸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어조가 아니라 구조와 증거”라며 “현재의 재정 운영 방식은 부패를 더 은밀하고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K-이니셔티브 협의체 출범식'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이 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과 지난 3월 10일 자카르타에 있는 한국대사관 강당에서 'K-이니셔티브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사진=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이 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과 지난 3월 10일 자카르타에 있는 한국대사관 강당에서 'K-이니셔티브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K-이니셔티브(K-Initiative)란 대한민국이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로 뛰어오르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으로, 국민주권 정부 123개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에는 대사관 관계자들과 KOTRA, KOICA,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현지 진출

공공기관 관계자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을 포함해 80여 명이 참여했다. 출범식에서 윤순구 대사는 “K-이니셔티브 협의체는 경제·산업, 문화, 개발 협력, 한국학 등을 아우르는 플랫폼”이라며,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날인 11일 하노이에 있는 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서는 제1차 K-이니셔티브 팀코리아 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베트남 진출 총 38개 공공기관, 공기업, 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협력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월드코리아]

유성 종합건설

PT. YUSUNG JAYA ABADI

기술로 짓고
신뢰로 완성합니다.

건설 기계 전기 배관
정수 및 폐수처리시설

유성열 대표 : 0812 8037 0303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Raya CurugPos Bitung15810
yusungjaya1@hotmail.com / 021 598 0222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2026년 후기 인도·아세안지역 전공 신입생 모집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 Area Studies
Hanky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지정학적 갈등과 통상연안을 둘러싼 글로벌 불확실성의 시기, 미래의 국제지역전문가를 꿈꾸다"

구분	1차	2차
온라인 지원기간	2026. 3. 31(화) ~ 4. 9(목)	2026. 5. 19(화) ~ 5. 28(목)
면접일	4. 25(토)	6. 13(토)
온라인 원서접수	http://gsias.hufs.ac.kr	

Sujan Ratna Shukya
전임 인도-아세안 전문(아-세안) 통상(통상) 2025학년도 1학기 2차
"미래 인도-아세안지역 국제전문가"
JTBC "비즈니스"에서
내담 대표로 활약

Fatma El Zein
전임 국제지역(아-세안) 2025학년도 1학기 2차
"미래 열광적인 국제 전문가들"

Zagnibida Victoria
전임 ASEAN-CIS 학과 2025학년도 1학기 2차
"미래 유라시아 지역 정치문제 전문가"

"지금이야말로 국제지역학의 전문성을
키울 절호의 기회!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GSIAS)이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QR CODE: SCAN ME

Homepage: http://gsias.hufs.ac.kr Instagram: @gsiasstudentcouncil X (formerly Twitter): @hufsgsias
Unauthorized use or reproduction of this photo is strictly prohibited and may result in legal action.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본관 [한국외대 제공]

일(목)까지이다. 입학문의는 국제지역대학원 사무1팀 전화 (02) 2173-2448 또는 2449, 웹사이트 (http://gsias.hufs.ac.kr)를 방문하면 자세한 입학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제지역대학원은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교육을 통해 지역학의 기초를 다진 후, 각 지역별·부분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국제협력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996년 국제대학원으로 설립되었다. 국제지역대학원은 국제지역 전문가를 양성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 전문인력 양성 전문대학원의 위상에 걸맞게 전 과목을 영어 및 해당 원어로 진행하고 있다. 또 외국기관, 정부기관, 국내 유수 기관 및 벤처기업 등에 높은 취업률을 자랑한다. [데일리인도네시아]

글로벌 융복합 인재의 산실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인도·아세안지역학과에서 2026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우리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의 핵심지역인 인도와 동남아 지역

학을 연구·교육하는 인도·아세안지역학과에서는 관련 전공 석/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1차 원서접수는 2026년 3월 31일(화)부터 4월 9일(목)까지이며, 2차 원서접수는 2026년 5월 19일(화)부터 5월 28

제논, 인도네시아에 첫 해외 법인 설립

‘글로벌 AX 파트너’ 로 도약 시동

생성형 인공지능(AI) 솔루션 전문 기업 제논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첫 해외 법인을 설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제논은 24일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자카르타에서 오피스 개소식을 진행했다. 초대 법인장에는 현지 시장 개척과 해외 사업 개발을 주도해 온 김태룡 해외사업개발 리드가 선임됐다. 제논은 2023년부터 국내외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신발 제조 공장을 대상으로 비전 AI 기반 품질 검사 자동화 솔루션 PoC(기술검증)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해외 사업 역량을 축적해왔다고 설명했다. 제논은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네시아 산업 구조에 비해 AI 솔루션 공급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주목했고 이를 기회로 삼아 선제적인 시장 선점을 추진해왔다. 2억70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거대 시장인 만큼 제논은 자사의 기술력이 현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논은 이번 법인 설립을 기점으로 비전 AI 기반 품질관



▲고석태 제논 대표(왼쪽)와 김태룡 인도네시아 법인장이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현지 오피스 개소식을 진행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제논

리 솔루션의 현지 공급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솔루션을 중심으로 현지 사업 영역 또한 다각화할 계획이다. 제논은 추후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로의 진출 또한 가속화하며 사업 영토를 넓혀 나간다는 목표다. 고석태 제논 대표는 “지난 3년간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검증된 AI 기술과 비즈니스 역량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제조 및 공공 부문의 AX 전환을 선도하는 핵심 파트너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31일 실적 발표’ 나이키, 52주 신저가 경신...시간외 ‘강보합’

나이키(NKE) 주가가 시장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20일(현지시간) 정규장 거래에서 하락폭을 키웠던 나이키 주가는 전일 대비 2.04% 밀린 52.37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특히 장 막판 52.18달러까지 내려오며 52주 신저가를 새로 쓰게 된 것이다. 그러

나 이후 현지시간 이날 오후 5시 18분 시간외 거래에서 나이키는 0.44% 반등하며 52.6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나이키 주가는 27% 넘게 하락한 상태다. 이는 소매 및 의류 섹터 전반에 대한 위축과 나이키 내부의 개별적 과제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주요 투자은행들의 나이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스티플은 투자 의견 ‘보유’와 목표주가 65달러를 유지하며,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 112억 달러, 주당순이익(EPS) 0.30달러라는 낮은 기대치를 제시했다. BTIG는 목표주가를 90달러로 조정하면서도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다만 3분기

매출액 112억8000만 달러와 EPS 0.26달러로 역시 낮은 수준을 예상했다. 또한 UBS는 글로벌 판매 모멘텀 약화를 근거로 목표주가를 58달러로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했다. 반면 긍정적인 전망도 존재한다. 제프리스는 닉스 스포팅 굿즈(DKS)로부터 유통 현황을 확인한

결과 나이키 도매 채널의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110달러를 고수했다. 트루이스트의 소매 채널 점검 결과에서도 닉스 스포팅 굿즈 내 나이키 러닝화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남성용 ‘보메로 프리미엄’ 모델은 품질 사태를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나이키는 31일 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마켓인]



PT. BIC JAYA INDONESIA

작업환경측정(K3) / 근로자 건강검진(MCU) / 사내클리닉(In House Clinic)부문
인도네시아 정부(DEPNAKER) 대행기관

인도네시아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기관,
한국 기업들의 든든한 산업보건 환경 지킴이!



노동부 장관 BIC 방문 (2022.12)



노동부 차관 BIC 방문 (2023.12)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임명 (2024.5)



수하르토 대통령 BIC 주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 지정 (1993~2007)

www.bicjayaindonesia.com

JAKARTA : Wisma Staco 6F, Jl. Raya Casablanca Kav. 18 +62 21 3049 0114 bicjaya.id@gmail.com
KOREA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57 부산 인도네시아센터(BIC) +82 51 365 0041 www.bic-korea.com



UTAMAKA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BIC은

- 작업환경측정(K3)/산업보건 환경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최초 한국계 인도네시아 정부(노동부) 대행기관
-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업체 연 1회 작업장 환경측정/근로자 건강검진 법적 의무사항
- 한국에서 노동부 지정 산업보건기관 운영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 축적
-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검진, 사내 클리닉 (In House Clinic) 운영을 패키지로 일괄 수행
- 40여년간 한국에서 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 관광부, 노동부, 할랄청, 대표부 역할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각별한 협력관계 유지, 우리 기업들의 대 인도네시아 정부 애로사항 해결지원

성실한 일꾼을 위한 나이키의 새 에어 맥스, 근면성실하다

맨체스터의 일벌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이번 나이키 에어 맥스 플러스. 스니커 팬들이 그 야말로 열광하고 있다. 신고 출근하면 더 바쁘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이걸 착화감도 매우 뛰어난 스니커다. 근면함과 자신만의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에서, 나이키 에어 맥스 플러스 '맨체스터'는 0161의 에너지를 그대로 담아낸 완벽한 한 켤레다.[GQ]

나는 맨체스터 주민은 아니지만, 몇 번 들른 적이 있다. 거기에 가면 모든 것이 어딘가 다르게 느껴진다. 사람들은 자기가 향하는 길을 곧게 바라보며 빠르게 움직이고, 공기는 더 날카롭게 느껴지며, 어디를 봐도 도시를 상징하는 존재인 '워커 비'가 눈에 띈다. 워커비는 맨체스터의 근면 성실한 산업 도시의 정체성을 가진 도시 엠블럼이다. 상점 유리창의 스티커부터 재킷 위 작은 별 모양 핀까지, 노란색과 검은색의 흔적이 도시 곳곳에 퍼져 있다. 분주하지만 요란하지 않고, 바쁘지만 당당하다. 나이키가 이 도시를 위한 에어 맥스 플러스를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손 맥도웰이 디자인한 나이키 에어 맥스 플러스는 1998년에 처음 출시됐다. 플로리다의 석양과 야자수에서 영감을 받은 이 신발은 결코 평범한 디자인이 아니었다. 기술적이면서 공격적이고, 어딘가 살짝 미친 듯한 이 신발은 그래서 더 매력적이었다. 영국에서 에어 맥스 플러스는 퍼포먼스 러닝화로 오래 머물지 않았다. 하나의 유니폼이 되었다. 특히 북부 지역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로, 이후 '로드맨 스타일'이라 불리게 되는 룩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가격대도 한뼉했다. 이걸 부담 없이 신는 자가 스니커가 아니었다. 당시 기준으로 10만 원 후반대로 가격은 꽤 높은 편이었다. 이 신발을 신고 있다는 건 곧 취향과 지위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2000년대와 2010년대를 지나며 이 신발은 어디에나 있었다. 치킨집 앞에서도, 스니커즈 매장 줄

에서도, 학교 복도에서도 보였다. 그라임 공연과 랩 뮤직비디오에도 등장했고, 아티스트와 팬들이 모두 즐겨 신었다. 이걸 단순히 신는 신발이 아니었다.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다. 이제 다시 맨체스터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지난 2월, 나이키는 이 도시의 근면한 공동체와 그 상징인 벌을 기념하기 위해 '맨체스터' 컬러웨이를 공개했다. 워커비는 산업혁명 시기부터 도시 정체성의 일부였으며, 끊임없이 일하는 도시를 상징해왔다. 시청 바닥 타일에서도, 거리의 그래피티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팔에 새겨진 타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번 모델에서는 그 상징이 제대로 반영됐다. 어퍼는 통기성이 좋은 메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위에 은은한 벌집 패턴이 더해졌다. 컬러는 블랙과 옐로를 중심으로 하되 과장된 느낌으로 흐르지 않도록 절제했다. 텅의 앞뒤에는 특별한 벌 로고도 들어가 있다.

뉴발란스 뉴히어로 外 [이주의 책]

우리 대부분은 그간 뉴발란스를 몇 가지 피상적인 특징으로만 인지했다. 아마도 회색 운동화, 알파벳 'N'이 새겨진 신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 때 즐겨 신었던 신발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뉴발란스는 무려 120년에 달하는 역사를 지닌, 세계에서 첫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긴 생명력을 이어온 스포츠 패션 브랜드다.

'뉴발란스 뉴히어로'의 전반부에서는 뉴발란스라는 브랜드의 탄생에서부터 과거 러닝화 등 운동화 중심의 성공적 사업 전개 역사를 조명하고 오늘날 육상 등 스포츠 시장을 넘어 다각화된 스펙트럼으로 최고의 스포츠 패션 브랜드로 자리 잡은 뉴발란스의 현재를 이야기한다. 후반부에서는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서는 후발주자였던 뉴발란스가 기존에 공고히 구축되어 있던 스포츠 패션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한 배경과 원인을 분석한다. 책을 집필한 조한송 저자는 경제전문 일간지에서 10년 넘게 취재 기자로 활동했고 최근 3년간 산업부에서 패션 및 뷰티 산업의 최



전선을 취재했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기업, 브랜드를 접하며 한국의 패션 비즈니스가 국내는 물론 아시아와 세계로 확장해나가는 변화를 목격했고 이랜드와 뉴발란스의 특별한 동반성장 스토리에도 큰 관심을 갖게 됐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뉴발란스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성장·발전해왔는지,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는 후발주자였음에도 기존 브랜드들의 아성을 위협하고 끝내 넘어선 배경은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 뉴발란스 고유의 가치와 진면목을 독자들에게 전한다. [한경 BUSINESS]

우리카드, '한·인도네시아 QR결제 서비스' 공식 개시

우리카드가 국내 카드사 최초로 인도네시아 QR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우리카드는 '한·인도네시아 QR결제 서비스'를 공식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금융결제원망을 활용해 구축된 국가 간 QR결제 서비스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우리카드 고객은 별도의 현지 앱 설치나 환전 없이 기존 앱으로 현지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전역 3,200만 개 이상의 QRS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우리카드는 해당 서비스 전용 상품인 '카드의정석2 ExK 체크

카드'도 새롭게 선보였다. 이 카드는 인도네시아에서 QR결제와 ATM 인출 서비스를 모두 지원하며, 베트남·태국·필리핀 등 주요 동남아 국가에서도 ATM을 이용하게 한다. 특히 실물 없이 모바일카드로 즉시 발급이 가능해 인도네시아 현지 도착 후에도 기다림 없이 QR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수료와 환율 부문에서도 혜택을 제공한다. QR결제 서비스는 국제브랜드 및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했으며, ATM 인출 시에는 건당 500원의 정액 수수료와 30%



▲(사진=우리카드) 환율 우대 혜택이 적용된다. 서비스 오픈 기념 이벤트도 마련됐다. 우선 5월 말까지 '카드의정석2 ExK 체크'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가 펼쳐진다. 이벤트 기간 내 응모를 완료하고, 해당

카드로 인도네시아 현지 가맹점에서 1만원 이상 첫 결제한 고객 중 선착순 1천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 또한 이달 9일부터 말일까지 개인 체크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대규모 해외 결제 캐시백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다.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응모한 고객에게는 해외 결제 이용 금액에 따라 최대 5만원까지 캐시백을 차등 지급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기술 혁신을 넘어 고객의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이고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국가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백세시대

BEST SELLER

PT. Indokon Multi Sarana는 실내·실외 비디오트론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No.1 선도 기업으로, 인테리어 시공 전문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T. Indokon Multi Sarana는 정밀한 기획, 프리미엄 자재, 그리고 전문적인 시공 기준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미적 가치, 높은 완성도를 갖춘 비주얼 및 공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선명한 디스플레이, 내구성 높은 시스템, 그리고 철저한 납기 준수를 실현합니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산업 단지, 오피스, 상업 공간, 공공 시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IMS www.indokonmultisarana.com
 (+62)21-2263-2551
 PT. INDOKON MULTI SARANA, Jakarta, Indonesia

아디다스 ‘하이퍼부스트 엣지’ 출시



글로벌 리더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로드 러닝의 패러다임을 바꿀 초경량 데일리 러닝화 ‘하이퍼부스트 엣지(Hyperboost Edge)’를 전격 출시한다.

‘하이퍼부스트 엣지’는 압도적인 쿠셔닝과 강력한 에너지 리턴, 그리고 경량성 등 세

가지 혁신 기술을 결합한 슈퍼 트레이너 러닝화다. 딱딱한 플레이트나 보강재 없이 제작되어, 발의 움직임에 맞춘 자연스러운 추진력을 제공하며, 255g의 가벼운 무게로 최상의 편안함과 높은 에너지 리턴을 선사한다.

하이퍼부스트 엣지의 핵심은

아디다스의 최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하이퍼부스트 프로(Hyperboost Pro)’ 폼 미드솔에 있다. 45mm의 두툼한 뒤꿈치와 6mm 드롭(앞코와 뒤꿈치의 높이 차)으로 설계되어 데일리 러닝부터 고강도 장거리 훈련까지 모든 러닝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지원한다.

아디다스가 독일 쾰른 대학교와 진행한 소비자 연구 결과 러너들의 73%가 뛰어난 에너지 리턴을, 77%가 더 부드러운 쿠셔닝을 경험했다고 답하며 성능을 입증했다.

소재와 디자인에서도 혁신을 담았다. ‘하이퍼부스트 엣지’ 갑피(Upper)에 적용된 가볍고 부드러운 ‘프라임위브(PRIMEWEAVE)’ 소

재는 발을 안정적으로 감싸주며, 뒤꿈치의 힐 포드(heel pods)가 안정성을 더해 향상된 착화감을 선사한다. 또한, 아디다스 아디제로의 DNA를 이어받은 ‘라이트트락시온(LIGHTTRAXION)’ 아웃솔이 접지력을 높여 다양한 지면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러닝을 돕는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입체적인 미드솔 실루엣을 통해 ‘하이퍼부스트 프로’ 폼의 기능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하고, 미드솔에 아디다스를 상징하는 3-스트라이프 디테일을 더했다. 여기에 끈 구멍을 숨긴 절제된 디테일을 더해 미래지향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했다.

아디다스 러닝 총괄 매니저

패트릭 나바(Patrick Nava)는 “‘하이퍼부스트 엣지’는 쿠셔닝, 에너지 리턴, 경량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완벽하게 구현한 러닝화다”라며, “이번 제품은 하이퍼부스트 프로(Hyperboost Pro) 기술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하이퍼부스트 엣지’는 23일(월)부터 아디다스 공식 온라인스토어와 △아디다스 브랜드 플래그십 서울 △강남 브랜드센터 △홍대 브랜드센터 △롯데월드몰 브랜드센터 △퍼포먼스 서촌 △OYM 경복궁 및 일부 ABC마트에서 만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

아식스, 러닝화 ‘젤-넘버스20(GEL-NIMBUS 20)’ 출시

아식스(ASICS Korea)가 대표 쿠셔닝 러닝화 젤-넘버스(GEL-NIMBUS) 시리즈의 스무번째 출시를 기념해 ‘젤-넘버스20(GEL-NIMBUS 20)’을 출시했다.

새로 출시된 ‘젤-넘버스20’은 젤 넘버스 시리즈 중 가장 가벼운 제품으로 장거리 러닝에도 지속적인 충격 흡수력과 편안한 착화감이 강점이다. 러닝 시 발목이 바깥 쪽으로 꺾이는 외전 성향의 러너에게 최적화된 제품이다. 제품 바닥은 스페바45(SpE-VA 45) 라스팅으로 반발성을 높였으며, 쿠셔닝과 경량성을 높이기 위해 아식스 독자 개발 소재인 ‘플라이트 폼(FlyteFoam)’을 미드솔에 적용했다.

러닝화 갑피 부분에는 부위에 따라 4단계로 조직의 밀도 차이를 둔 ‘그라디언트 메쉬(Gradient Mesh)’ 소재가 사용됐다. 러닝 시에는 부위별로 발이 받는 힘의 정도와 피로도가 다르며, 특히 전족부 관절부분과 발목으로 이어지는 뒤꿈치의 피로도가 가장 높다. ‘그라디언트 메쉬’는 발의 피로도에 따라 메쉬 소재의 조직 밀도를 달리해 장거리 러닝 시에도 처음과 같은 착화감을 유지시켜준다.

또 충격 흡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족부와 후족부에 충격 흡수 소재인 젤(GEL)을 추가했다. 신발의 뒤틀림을 제어하는 트러스틱 구조와 러닝 시 자연스러운 체중 이동을 돕는 가이던스라인도 적

용했다.

이 밖에 신발끈이 들어가는 부분인 ‘아이렛(eyelet)’을 지그재그 형태로 만든 ‘스타-쉐입(Star-shape)’ 디자인으로 신발끈을 조일 때 개인의 발 모양에 맞게 갑피가 변형돼 피팅감을 살렸다. 아식스 글로벌 퍼포먼스 러닝화 총괄 매니저인 제라드 클라인은 “젤-넘버스 시리즈는 1999년에 처음 출시한 아식스를 대표하는 쿠셔닝 러닝화로 자리잡았다”며 “넘버스는 라틴어로 구름을 의미하며, 러닝 시 가볍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약 20년간 매년 업데이트 돼 출시된 젤-넘버스를 통해서 쿠셔닝을 중시하는 러



▲아식스가 대표 쿠셔닝 러닝화인 젤-넘버스(GEL-NIMBUS) 시리즈의 스무번째 출시를 기념하기 위해 ‘젤-넘버스20(GEL-NIMBUS 20)’을 출시했다.

너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젤-넘버스20’은 12월 남녀 각 1종, 1월에 남성 3종, 여성 2종으로 출시된다. 오늘(1일) 강남직영점, 이태원직영점, 부산광복직영점과 아식스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선출시되며 오는 15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구매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아식스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한국금융경제신문



COSMO www.cosmofamily.com



GFRP WIREMESH



GFRP REBAR

더 가볍게, 더 강하게.
인도네시아 최초 SNI 인증 GFRP 보강근 제조사.
부식 없는 철근 대체 솔루션
Cosmo GFRP Indonesia.

Office : Menara Bidakara 1, 21st Floor, Unit 2152 & 2156 Jl. Jenderal Gatot Subroto Kav. 71-73 Kelurahan Menteng Dalam, Kecamatan Tebet Kota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870
Factory : Kawasan Industri Suryacipta City of Industry, Jalan Surya Madya XIV, Kavling I-67A3, Kabupaten Karawang, Provinsi Jawa Barat 41362
Tel. : +62 811 9630 8805
Email : jaydentyp@cosmogfrp.co.id

“나이키가 10년간 연구했다” ... 출시하자마자 ‘품질 대란’

지압 슬리퍼 닮은 나이키 신상 ‘마인드’
한국 출시 직후 품질...해외선 웃돈 거래
“스포츠에 집중” 나이키 선언 입증
스킴스 협업도 인기...성수동 팝업 ‘복적’



▲나이키 마인드 001(왼쪽)과 002. (사진=나이키)

세계 1등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는 지난 1월 독특한 신상품을 내놨다. 신발 밑창에 둥그란 폼 20여개가 박혀있는 물(슬리퍼)과 운동화다. 이름은 ‘나이키 마인드’ (Nike Mind). 투박한 지압 슬리퍼와 같은 외형이지만, 이 풋웨어는 한국에서 출시하자마자 1차 물량이 ‘완판’ 됐다. 2차 물량을 들여왔는데 남성 상품은 또 다시 품절된 상태다. 해외 리셀 시장에선 명품처럼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 투박한 지압 슬리퍼는 다를 아닌 ‘나이키의 선언’

을 압축한 상품이다. 나이키는 2024년부터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에 시달렸다. 2025 회계연도 기준 매출은 463억 달러로 여전히 세계 1등 스포츠

츠 브랜드지만, 직전해 대비 10% 가까이 줄었다. 나이키의 구원투수로 온 엘리엇 힐 최고경영자(CEO)가 내놓은 해답은 ‘스포츠로의 회귀’다. 지난해 나이키 본연의 정체성인 스포츠와 퍼포먼스에 다시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존 도나호 전임 CEO가 나이키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포지셔닝한 것이 패착이었다는 판단에서다. 그 일환으로 사업부 조직도 여성, 남성, 아동 등에서 스포츠 종목별로 재편했다. 나이키 마인드는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10여년에 걸친 연구 끝에 내놓은 이 상품은



▲나이키 마인드 001을 신은 엘링 홀란드. (사진=나이키)

나이키 최초의 신경과학 기반 풋웨어다. 22개의 폼 노드가 움직임에 따라 발바닥 감각을 자극하면, 뇌의 감각 네트워크로 연결돼 경기 직전 스포츠 선수의 몰입과 집중을 돕는다는 설명이다. 영국 맨체스터 시티 FC 소속 선수인 엘링 홀란드가 실제 상품 개발 과정에 참여해 마인드의 퍼포

먼스를 검증하기도 했다. 나이키는 이와 함께 다양한 컬래버레이션도 늘리고 있다. 최근 킴 카다시안의 브랜드로 유명한 ‘스킴스’와 손잡고 요가, 필라테스 등 여성 운동복을 론칭했다. 지난달부터 서울 성수동에서 ‘나이키 스킴스(NikeSKIMS)’ 팝업이 열리고 있는데, 매일 입장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선 “나이키가 영광을 되찾는 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증권가에선 올해 2026 회계연도 기준 나이키 매출이 전년 대비 소폭 반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이키의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달 31일 공개된다.

[한경]

키스 x 뉴발란스 ‘Made in UK 991v1, 991v2’ 공식 출시 정보



키스가 뉴발란스와 협업한 ‘Made in UK 991v1’과 ‘991v2’를 공개했다. 이번 스니커는 키스의 2026 봄 시즌 ‘Kith 101’ 컬렉션에 맞춰 디자인된 제품으로, ‘벤티버’와 ‘문락 두 가지 컬러웨이로 구성됐다. 스니커는 영국 생산 라인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Made in UK 시리즈를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피그스킨 스웨이드와 메쉬 언더레이, 리플렉티브 디테일, 플랫폼 우븐 레이스를 조합해 완성도를 높였다. 991v1은 힐, 텅, 풋베드에 키

스 로고를 배치하고, 슈레이스에는 커스텀 로고 듀브레를 더해 협업 디테일을 강조했다. 반면 991v2는 앵클 외측과 텅, 풋베드에 로고를 적용해 보다 미니멀한 인상으로 완성됐다. 스툴 유닛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991v1에는 ABZORB 폼을 적용했으며, 991v2는 여기에 FuelCell 쿠셔닝을 더해 더욱 향상된 반발력과 착화감을 제공한다. 해당 스니커는 3월 16일부터 전 세계 키스 매장과 공식 웹사이트, 앱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

[HYPEBEAST]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KYUNGWON
COMPRESSOR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영점: (주)동부경원세기

TEL: +82-2-465-6308 / 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전상규 법인장: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KYUNGWON COMPRESSOR
GENUINE PARTS

‘추억의 프로스펙스’ 리브랜딩 본격 추진... “나이키 비켜~”

1980~1990년대 글로벌 브랜드 나이키에 맞섰던 국내 브랜드 프로스펙스가 브랜드 혁신을 통해 재기에 나선다. 유통 구조를 혁신하고 러닝화 중심의 전략 상품을 개발해 리브랜딩에 나선 것이다. 리브랜(Rebranding)은 시장에 알려진 기업 또는 브랜드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작업이다. 프로스펙스를 생산·판매하는

LS네트웍스는 올해 SS 시즌(봄·여름)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리브랜딩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리브랜딩은 브랜드 중심의 전략 체계를 구축하고 브랜드 가치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라는 게 LS네트웍스 설명이다. 현재 LS네트웍스 본사는 경남 김해시에, 주요 거

LS네트웍스, 유통구조 개선 브랜드 중심 전략체계 구축 ‘러닝화’ 중심 상품군 강화



▲프로스펙스가 45년 브랜드 자산을 바탕으로 리브랜딩에 나선다. 사진은 전략 상품으로 이번에 출시하는 프로스펙스 쿠셔닝 러닝화 SWNA SEAM 26. LS네트웍스 제공

점은 서울 용산구에 있다. 프로스펙스는 45년간 축적한 브랜드 자산을 기반으로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상품 기획, 디자인, 유통 전략 전반에서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프로스펙스는 이번 리브랜딩에서 브랜드 방향성을 ‘SPORTS FOR ALL(모든 이를 위한 스포츠)’로 내세웠다. 기록, 경쟁 중심의 스포츠를 넘어 누구나 자신의 방식으로 스포츠를 즐기고 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지향하는 브랜드 철학이다. ‘SPORTS FOR ALL’은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 선수단과 국가대표 후원, 스포츠 구단 협력, 마라톤 대회 참여 등 기존 브랜드 활동과도 이어진다.

상품 포트폴리오는 ▷러닝 ▷스포츠스타일 ▷헤리티지 ▷스포츠 등 네 개 전략 상품군 중심으로 재편했다. 러닝 카테고리를 브랜드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2026 SS 시즌에는 이 전략의 첫 결과물로 쿠셔닝 러닝화 ‘SWNA SEAM 26’을 선보인다. 산업디자인 스튜디오 SWNA와 협업해 개발했으며 일상과 10km 내외 러닝을 아우르는 데일리 러닝화로 설계됐다.

유통 전략 또한 브랜드 경험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서울 용산 LS타워 지하 1층의 직영점과 아웃렛은 통합 직영 매장으로 리뉴얼했다. 프로스펙스는 매장을 단순 판매 공간을 넘어 브랜드 철학과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는 브랜드 라운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에는 롯데백화점 광복점에 대형 매장이 있다.

LS네트웍스는 1949년 양태진 양정모 부자가 부산 부산진구 범

천동에 설립한 국제화학이 모태다.

‘왕자표’ 고무신으로 전국적 명성을 얻었고 국내 신발 산업의 기틀을 닦았다. 국제화학은 1976년 국제상사로 이름을 바꿨고 1981년 자체 브랜드 프로스펙스를 출시했다.

하지만 국제상사가 속한 국제그룹은 1985년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강제 해체를 당하고 한일합성에 인수됐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한일합성이 부도가 나면서 1999년부터 법정관리를 받았다. 2007년 LS그룹 계열인 E1이

국제상사를 인수하고 2008년에는 사명을 LS네트웍스로 바꿨다. 프로스펙스가 주축하던 2000년대 초반 국내 스포츠화 시장은 나이키, 뉴발란스, 아디다스 등 외산 브랜드가 주류를 이뤘다. 현재 국내 스포츠화(운동화) 시장은 약 4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나이키 뉴발란스 아디다스가 3강 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아식스 호카 데상트 스케처스 등이 약진하는 양상이다. 유통망에서는 무신사, 크림 등의 영향력이 크다.

©국제신문

퍼렐 윌리엄스의 휴먼레이스 x 아디다스 아디제로 EVO SL ‘마스’ 공개



퍼렐 윌리엄스의 휴먼레이스와 아디다스가 협업한 러닝 스니커 아디제로 EVO SL ‘마스’가 공개됐다. 이번 컬렉션은 화성의 거친 지형과 붉은 먼지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된 러닝 캡슐로, 스니커부터 퍼포먼스 의류까지 함께 구성됐다.

스니커는 아디다스의 러닝 라인업 ‘아디제로’ 시리즈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어퍼는 엔지니어드 메시 구조로 제작돼 통기성과 지지력을 동시에 확보했으며, 미드솔에는 폴랭스 LIGHT-STRIKE PRO 품이 적용돼 부드럽고 반응성 있는 착화감을 느껴볼 수 있다.

이어 어퍼럴 라인에는 가벼운

트랙 재킷과 쇼츠로 구성된 퍼포먼스 세트가 포함됐다. 트랙 재킷은 밀단 조절 기능과 활동성을 고려한 핏으로 설계됐으며, 쇼츠는 통기성이 높은 루즈핏으로 선보여졌다.

이번 캠페인은 미국 오리건주 페인티드 힐스에서 촬영됐다. 화성과 유사한 붉은 지형을 배경으로, 러닝을 기록 경쟁이 아닌 일상 속 균형과 에너지를 만드는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아디다스 x 휴먼레이스 아디제로 EVO SL ‘마스’는 3월 21일부터 아디다스 공식 웹사이트 및 컨펌드 앱, 그리고 일부 리테일에서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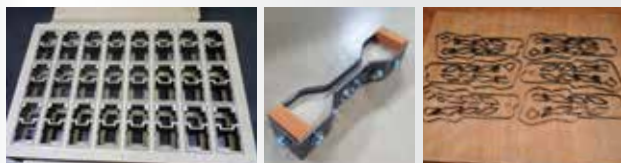
HYPEBEAST

톱슨 목금형(톱슨발형) 아크릴 커팅, 밴딩가공

- 생산성 향상
- 짧은제작기간
- 정밀성
- 품질 향상
-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톱슨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톱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 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1987busan@naver.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톱슨금형, 특수 칼금형

아이더 ‘플렉션 하이브리드’ 매출 400% ↑ ...경량 하이킹화 부상

2차 리오더 진행...2월 성장 견인
‘걷는 즐거움’ 초점...고어텍스와 공동 개발 기술 적용



▲ ‘아이더’의 하이킹화 ‘플렉션 하이브리드’ 올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00% 성장했다.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대표 정영훈)’의 하이킹화 ‘플렉션 하이브리드(FLEX-ION HYBRID)’가 빠른 판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매출(2월 중순~현재)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00% 성장했다. 특히 아웃도어 신발 시장이 전반적으로 비수기로 평가되

는 2월에도 꾸준한 판매 흐름을 이어가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차 리오더도 진행 중이다.

업계는 플렉션 하이브리드 등을 비롯한 경량 하이킹화가 주목받는 이유로 ‘가볍게 걷는 아웃도어’ 트렌드 확산을 꼽는다. 봄철 야외 활동 증가와 함께 가볍고 편안한 워킹 중심 제품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12g의 초경량 하이킹화 플렉션 하이브리드는 ‘걷는 즐거움’을 중심으로 설계된 아이더의 대표 하이킹화 라인이다. 고어텍스와 세계 최초로 공동 개발한 ‘고어텍스 하이브리드 구조’를 적용해 가볍

고 오래 걸어도 쾌적한 착화감을 제공한다.

신발 아웃솔까지 투습이 가능한 ‘고어텍스 서라운드(GORE-TEX SURROUND)’ 기술과 발에 밀착되는 ‘고어텍스 인비저블 핏(GORE-TEX Invisible Fit)’ 기술을 결합해 우수한 통기성과 편안한 피팅감을 동시에 강화했다.

또한 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고려한 유연한 구조와 접지력을 강화한 아웃솔 설계로 다양한 지형에서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

걸을 때 지면 반응을 균형 있게 분산하는 ‘플로우 채널 시스템(FLOW CHANNEL SYSTEM)’과 전족부 3개의

유연 흡을 적용한 ‘트리플 플렉스(Triple Flex)’ 구조, 육각 패턴 기반 ‘헥사 그립(HEXA GRIP)’ 아웃솔 등을 적용해 안정성과 추진력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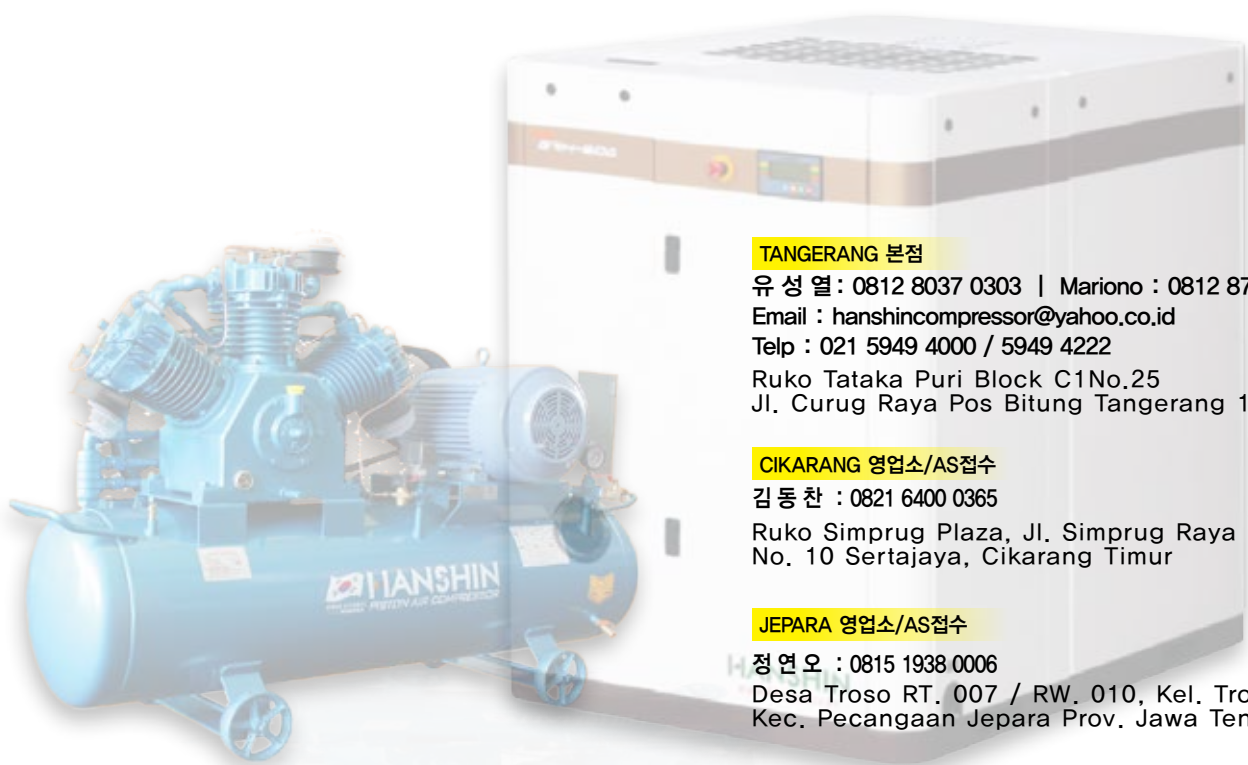
컬러는 민트, 피치, 라이트 그레이, 페일 옐로우 등 화사한 색상으로 구성했다. 가벼운 하이킹과 여행, 산책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멀티 하이킹화’로 입소문을 타며 소비자 반응을 얻고 있다.

업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더는 하이킹화 인기가 매출을 견인하면서 2월 매출이 전년 대비 6.3% 성장했다. 올해 1월부터 3월 15일까지 매출도 전년 대비 8.5% 성장하고 있다.

한국섬유신문

HANSHIN

에어 콤프레셔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